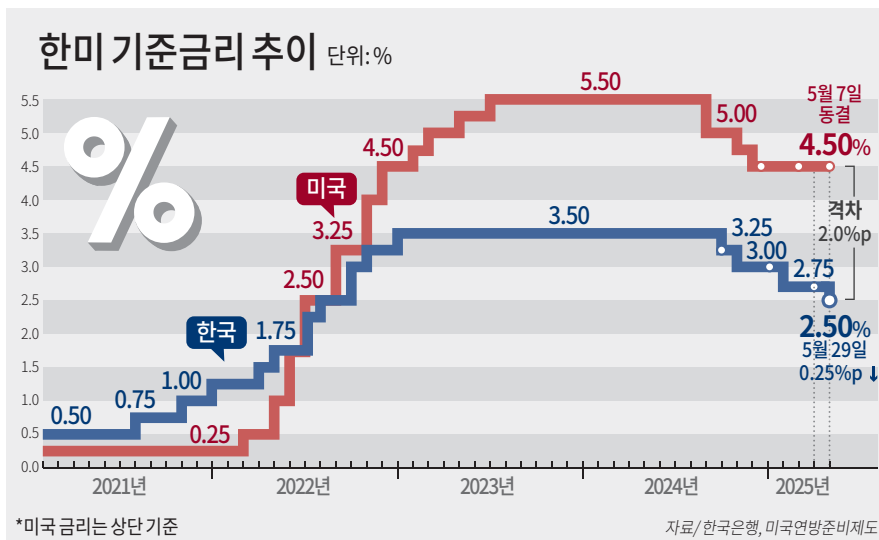


트럼프 압박에도 ‘금리동결’ 무게… 韓·美 격차 더 커지나

연준, 17일~18일 기준금리 결정
美 시장, 동결 가능성 99.9% 전망
이후 7월에도 83.4% ‘동결’ 시사
韓, 내달 꺾 기준금리 인하 예상
한미 금리격차 2.5%p로 커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상당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최대치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에게 “유럽은 금리를 10번이나 인하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인하하지 않았다”며 “그(파월 의장)가 금리를 늦게 인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 (금리를) 1%포인트(p) 내리면 경제



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는 17~18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고집에도 시장 “기준금리 동결”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금리(FF)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9%로

내다봤다. 오는 7월 열리는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3.4%다. 실물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를 내릴 만한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기 침체는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기간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소득, 고용, 산업생산, 고용 등에서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경기침체 시기에는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생산량이 줄어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는 5월 기준 13만9000개 늘었다. 전월(17만7000개)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예측(12만6000개)치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도 5월 기준 4.2%로 예상치와 같았다. 연준은 2003년말 기준 자연실업률을 4.4%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자연실업률은 경기와 관계없이 경제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실업률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상태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3%로 올해 ▲1월 3.0% ▲2월 2.8% ▲3월 2.4% ▲4월 2.3%로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 2%를 웃도는 상태로 금리를 인하하기 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 2.5%p까지 벌어지나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점차 뒤로 밀리면서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최대치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2.50%로 미국(4.25~4.50%)과 2%p 낮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연 3.50%였던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뒤, 올해 2월과 5월 금리를 또다시 낮췄다. 특히 지난달에는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

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린 목적이 컸다. 이날 금리를 결정한 6명의 금통화위원 중 4명은 3개월 내 기준금리가 연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미간 금리격차에 따른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은이 오는 7월과 8월 중 금리를 한차례 더 인하하면 금리차는 최대 2.5%p로 벌어진다.

한미 금리차가 커지면 자본유출과 원화 약세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자금을 옮기고, 이렇게 되면 원화가는 하락한다. 투자가 줄어 들면서 국내 기업의 투자는 부진해지고, 주식은 하락한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상승해 경기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미 금리차 확대 부담에도 국내 경기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관건은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정책이 완화되느냐, 강화되느냐 인데, 관세정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완화될 경우 한은의 금리 인하시기도 9월까지 늦춰질 수 있지만, 고관세가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지난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이 5공장 건설 현장에서 관계자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삼성

삼바 송도 사업장 찾은 JY ‘호실적’ 바이오 직접 챙겨

삼성 이재용, 건설중인 5공장 살피
정부 ‘AI 공약’ 정책 발 맞추기 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찾는 등 바이오 사업 전략을 직접 챙기며 현장 경영을 이어갔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찾아 현재 건설중인 5공장 등을 살펴보고 사업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찾은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자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인적 분할을 결정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현장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방문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끈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액(이하 연결기준) 4조5473억원, 영업이익 1조3200억원을 각각 기록해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연간 매출 4조원을 넘어선 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투자 확대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기공식에 참석하고, 2022년 4공장 준공식에도 자리하며 삼성의 신수종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이 이날 둘러본 5공장은 생산능력이 18만L에 달해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능력을 끌어올릴 핵심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